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¹⁾

전 소 희 · 김 은 서

초록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주류집단의 수용태도가 사회통합의 중요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인 일반국민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 경험이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다문화교육 경험이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한 직접접촉, 피상적 직접접촉, 그리고 긍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으며, 다문화교육경험은 친밀한 직접접촉과 긍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 이주민 접촉유형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다문화수용성, 외국이주민 접촉유형, 다문화교육, 접촉가설, 의사사회 상호작용이론

1) 본 논문은 2023년 8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권 2호에 출간되었으며, 구체적인 출간정보는 다음과 같다: 전소희·김은서 (2023).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2), 179-206.

I. 서론

한국은 전통적으로 민족의 구성이 단일한 단일민족국가로 여겨졌으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점차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보영·홍이준, 2021; 이재완, 2013).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살펴보면 2012년 144만 5천명이던 체류외국인의 수가 2022년에는 224만 6천명으로 10년 사이에 55.4% 증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2023). 또한 2012년 전체 인구 대비 2.84%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비율이 2022년에는 4.37%로 증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2023).

이처럼 외국 이주민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종, 종교, 언어,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방향으로의 사회통합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김영란, 2013; 곽준혁, 2007). 이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적응노력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주류집단의 수용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김이선 외, 2022).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부터 5개년도 단위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류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져 왔는데 (김경근·심재휘, 2016; 김이선 외,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지난 10년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초반대 점수에 머무르고 있어 시간이 지나도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수용성 정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최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되어,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노력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 혹은 다문화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미진·김경은, 2018; 남보영·홍이준, 2021; 이재완, 2013).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논문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다문화수용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미진·김경은(2018)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수용성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다문화역량 등 개인적 특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연구의 대다수가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인인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미진·김경은, 2018). 그러나 개인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요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연구가 활성화되어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성인인 일반국민으로 하여,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이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어

면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다문화교육 경험의 직접 및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 및 간접 접촉경험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효과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강조되었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요인들의 효과를 한 모형에서 동시에 살펴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써 학계에서 널리 합의되어 사용되는 단일한 정의는 아직 없으며 학자마다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남보영·홍이준, 2021). 다문화수용성이라는 용어는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김미진·김정은, 2018), 양계민(2009)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써 종족배제주의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을 주류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적 태도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종,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배경을 가진 집단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황정미 외(2007)는 다문화수용성을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을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이자형 외(2014)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인종적·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집단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문화수용성이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상이한 배경을 가진 집단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배제와 차별 없이 공존하려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안상수 외(2012)는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다. 안상수 외(2012)는 다문화수용성을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그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이들의 출신지역이나 경제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려는 총체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남보영·홍이준, 2021: 184).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안상수 외(2012)는 다문화수용성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측정하는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김이선 외(2022)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먼저 다양성 차원은 자신의 집단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는 집단의 문화에 대해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편견을 갖거나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관계성은 주류집단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관계 설정에 대한 지표로써, 주류집단이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통합적 관계를 형성함에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개념이다. 끝으로 보편성은 모두가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일관적

기준을 가지고 타 문화와 집단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다시 여덟 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나누어지는데, 다문화수용성 진단에 사용되는 구성개념의 의미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수용성 구성개념

차원	하위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정의
다양성	문화개방성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외국 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도
	국민정체성	한 국가의 국민됨의 자격을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국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 및 차별	인종, 민족, 지역 등에 대한 그릇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인한 선입관 혹은 부정적 지식의 정도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외국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에 동화될 것에 대한 일방적 기대의 정도
	거부·회피정서	외국 이주민들과의 접촉에 대한 의도적 회피나 이들에 대한 비합리적 부정적 정서의 정도
	상호교류행동의지	외국 이주민들과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보편성	이중적 평가	경제적 수준이나 인종적, 문화적 배경 등 특정 잣대를 기준으로 상이한 이주민 집단들에 대한 평가나 대우에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
	세계시민행동의지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 범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출처: 김이선 외(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의 19-23쪽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안상수 외(2012)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정의나 다문화수용성 구성개념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한국의 다문화화 양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주류 집단인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과 태도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의 개발을 통해 한국사회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하라 외, 2021; 김이선 외, 2022; 남보영·홍이준, 2021; 장수지, 20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 이주민들의 적응 노력 못지않게 주류집단인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국민들이 외국 이주민에 대하여 가지는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상수 외(2012)의 진단도구를 중심으로 다문화수용성 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2.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접촉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개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특히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인식이나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 반면,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미진·김경은,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혹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일반국민이 외국 이주민과 갖는 직·간접적인 접촉경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서 직접접촉이란 일상생활에서의 외국 이주민과 교류 혹은 상호작용을 뜻하는 친밀한 접촉의 경우와 단순히 외국인을 목격하는 피상적 접촉의 경우를 포괄한다. 또한 간접접촉이란 대중매체를 통한 접촉을 의미하며, 외국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접하게 되는 긍정적 간접접촉과 부정적 이미지를 접하게 되는 부정적 간접접촉의 경우를 포괄한다.

2.1. 직접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친밀한 접촉과 피상적 접촉의 효과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접촉경험,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을 의미하는 친밀한 접촉의 경우와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를 예측함에 있어 알포트(Allport, 1954)의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이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접촉가설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접촉의 효과에 대한 이론으로써, 그 기원은 20세기 초 미국 사회과학자들이 진행한 집단 간 접촉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Paluck et al., 2019). 20세기 초반의 집단 간 접촉에 대한 연구는 흑백분리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 소수인종인 흑인과의 접촉이 백인의 흑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즉 인종 간 접촉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e.g., Sims & Patrick, 1936; Smith, 1943). 이후 알포트(1954)가 집단 간 접촉의 이점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검증가능한 명제(testable proposition)의 형태로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접촉가설이다 (Paluck et al., 2019).

알포트(1954)의 핵심주장은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알포트(1954)는 접촉이 늘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이 해당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강화시킬 수도 있음을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알포트(1954)는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접촉을 하는 집단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두 집단이 실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두 집단 모두 자신이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Brewer & Kramer, 1985; Judd & Park, 2005). 둘째, 상호접촉을 하는 집단 간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하며, 셋째, 집단 간 협력이 일어나야 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접촉할 때보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호의존하며 협력할 때 접촉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넷째, 법이나 관습 등에 의한 지지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법이나 관습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은 수용의 규범(norms of acceptance)을 형성하고 집단 간 상호작용의 지침(guidelines)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접촉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알포트(1954)는 이러한 네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집단 간 접촉은 상대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거나 인식 및 태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알포트가 1954년 접촉가설을 제시한 이후 해당 이론에 대한 검증을 비롯, 어떤 조건 하에서 집단 간 접촉이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많은 연구들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접접촉이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을 제시하였다(Abrams et al., 2018; Graf et al., 2020; Pettigrew, 1997; Williams et al.,

2) 이 때의 접촉은 단순한 목격 등의 피상적 접촉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실제 교류 혹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접촉을 의미한다. 피상적 접촉과 대비하여 친밀한 접촉으로 명명된다 (남보영·홍이준, 2021).

2020). 그 중 Pettigrew and Tropp(2006)의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들은 집단간 접촉에 관한 515편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접촉가설의 주장을 검증하였다. Pettigrew and Tropp(2006)의 메타분석 결과는 알포트(1954)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이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필수조건이 아님을 제시한다. 즉, 알포트(1954)가 제시한 네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집단 간의 접촉이 일어날 경우 타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욱 커지는 정도의 효과는 있으나,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단간 접촉은 여전히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samples with no claim to these key conditions still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ontact and prejudice” ; Pettigrew & Tropp, 2006: 766).

국내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의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남보영·홍이준, 2021; 박미경 외, 2022; 서경숙·이근영, 2022; 윤인진·송영호, 2011; 장수지, 2021). 먼저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적 교류 경험 유무와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로써 박미경 외(2022)는 외국인 혹은 다문화가정 출신 친구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수지(2021) 또한 가족, 친척, 친구, 학교동료 혹은 직장동료, 이웃 등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외국 이주민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음을 제시하였다. 외국이주민과의 직접적 접촉 유무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직접접촉의 빈도에 관한 연구들 역시 직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남보영·홍이준(2021)은 외국인 친구와의 직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빈도가 잦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적 교류 혹은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제시하여 알포트(1954)의 접촉가설을 일면 지지하면서도, 대다수의 연구가 알포트(1954)가 제시한 네 가지 선행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혹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알포트(1954)가 주장한 네 가지 선행조건이 접촉의 긍정적 효과에 필수조건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ettigrew and Tropp (2006)이 메타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결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알포트가 주장한 선행조건의 충족 없이도 접촉은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선행조건의 충족과 무관하게 집단 간 접촉은 타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증명된 (“clearly demonstrated”) 방법임을 제시한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과도 궤를 같이 한다 (Paluck et al., 2019: 130; Yablon, 20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외국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 이주민과의 피상적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피상적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순노출효과이론 (mere exposure effect theory)에 근거한 입장으로써, 단순노출효과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대상에 자주 노출될수록, 즉 어떤 대상을 자주 접할수록 그 대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 (Zajonc, 2001). 외국 이주민과의 피상적 접촉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일부 연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예를 들어 남보영·홍이준(2021)은 외국 이주민에 대한 목격 빈도가 증가할수록, 즉 피상적 접촉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연구한

두예슬·김경근(2022)은 중학생의 경우 외국 이주민과의 피상적 접촉이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피상적 접촉빈도가 증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아짐을 보여줌으로써 피상적 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 양(+)적 관계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피상적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은 외국 이주민에 대한 피상적 접촉의 경우 이들에 대한 경계의식을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ennett, 2018). 국내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일부 경험적 연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신동훈·양경은(2018)은 피상적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특히 오랫동안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한국사회에서 상호작용이 결여된 외국 이주민에 대한 단순목격은 이들에 대한 낮은 감정과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외국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 및 피상적 접촉이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외국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외국 이주민과의 피상적 접촉빈도가 늘어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

가설 2-2: 외국 이주민과의 피상적 접촉빈도가 늘어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진다.

2.2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긍정적 간접접촉과 부정적 간접접촉의 효과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접촉 외에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 역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사회 상호작용 이론 (혹은 준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parasocial interaction theory; PSI theory)은 대중매체 속 등장인물의 이미지가 해당 인물 혹은 해당 인물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Horton & Wohl, 1956; Rubin & McHugh, 1987). 인간의 뇌는 현실에서의 직접적 경험과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유사해, 대중매체를 통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를 접하는 경우 이러한 이미지가 현실에서의 해당 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Horton & Wohl, 1956; Reeves & Nass, 1996). 이러한 PSI 이론의 주장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는데, 예를 들어 대중매체를 통해 히스패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접한 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백인에 비해 히스패닉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Mastro & Tukachinsky, 2011),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시청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민자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Atwell Seate & Mastro, 2016).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에도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남보영·홍이준, 2021; 두예슬·김경근, 2022; 박미경 외, 2022; 신동훈·양경은, 2020). 남보영·홍이준(2021) 및 신동훈·양경은(2020)은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의 유형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두 연구 모두 대중매체에서 긍정적 이미지의 외국 이주민의 모습 및 피해자로서의 외국 이주민의 모습을 많이 접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였으며, 부정적 이미지의 외국 이주민의 모습을 접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은 감소

함을 제시하였다. 두예슬·김경근(2022)은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의 노출 빈도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긍정적 이미지에의 노출빈도는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박미경 외(2022)는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 이주민에의 간접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박미경 외(2022)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 이주민 접촉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분석하여 대중매체 속 외국 이주민의 이미지에 따라 간접접촉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한 이주민 접촉을 긍정적 간접접촉과 부정적 간접접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1: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접한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

가설 3-2: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접한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진다.

3. 다문화교육경험과 다문화수용성: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3.1. 다문화교육의 직접효과

여성가족부(2018)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의 활성화를 17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무원, 경찰 등 대상별 다문화교육의 실시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확대실시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도 있으나 (강선경·김현진, 2011; 구하라 외, 2021; 황성동 외, 2012), 다문화교육의 효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를 통제변인으로 고려한 경우도 상당수이다 (남보영·홍이준, 2021; 두예슬·김경근, 2022; 장수지, 2021).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도 소수 존재하나 (두예슬·김경근, 2022), 기존 연구는 대체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강선경·김현진(2011)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구하라 외(2021)는 다문화교육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황성동 외(2012) 또한 다문화교육을 받은 대학생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제시하였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경숙·이근영(2022)와 성인인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수지(2021)의 연구 역시 다문화교육경험이 다문화 수용성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경험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다.

3.2.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교육의 직접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나, 다문화교육이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적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문화교육이 타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Bell et al., 2009; Hartog et al., 2015; Nagda et al., 2004). 다문화교육은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며 (Case, 2007; Rudman et al., 2001), 다문화교육을 받은 개인의 경우 자신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과 보다 조화를 이루어 일하거나 공존한다 (Hartog et al., 2015).

이를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접촉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외국 이주민과 상호작용 혹은 교류하는 친밀한 직접접촉에 있어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국 이주민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들과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가능성이 높고 (Hartog et al., 2015), 따라서 친밀한 직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정(+)적 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외국 이주민을 목격하는 피상적 직접접촉의 경우에도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이들 집단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이나 편견이 다문화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약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편견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줄이려는 의식적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ase, 2007; Nagda et al., 2004), 피상적 간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Adan, 2018; Keengwe, 2010),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으로써 (Rudman et al., 2001),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의 배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외국 이주민과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는 긍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습득한 타집단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부정적 모습의 외국 이주민이 전체 외국 이주민 집단을 대표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켜줌으로써 부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이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1: 다문화교육경험은 외국 이주민과의 친밀한 직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사이 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가설 5-2: 다문화교육경험은 외국 이주민과의 피상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설 5-3: 다문화교육경험은 외국 이주민과의 긍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사이 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가설 5-4: 다문화교육경험은 외국 이주민과의 부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사이 부(-)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한국사회 내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 다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김이선 외, 202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중·고교 재학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 추출틀로 삼아 층화표집, 확률비례계통추출, 계통추출 등의 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한 19-74세 사이 남녀 5,000명을 표본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23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이며,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김이선 외, 2022). 조사영역은 다문화수용성 수준, 다문화교육 및 활동경험,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직·간접 접촉경험, 국민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기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 등을 포함한다.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모형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지수(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KMA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안상수 외 (2012)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개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차원(15문항), 관계성 차원(11문항), 보편성 차원(9문항)으로 나누어 총 35문항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KMCI는 전체 총점이 210점(총 35개 문항, 각 6점 척도)이므로 안상수 외(2012)는 지수의 간명화를 위해 KMCI의 하위구성요소에 대하여 구성요소별 가중치를 개발하여 부여함으로써 KMAI를 개발,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0점-100점 사이 점수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수용성지수(KMAI)의 산출수식은 아래와 같다.

$$\text{다문화수용성지수(KMAI)} = \frac{\sum_{j=1}^8 w_j \bar{X}_j - \sum_{j=1}^8 w_j}{(r-1) \times \sum_{j=1}^8 w_j} \times 100$$

$\bar{X}_j$ 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측정변수 j 의 평균 값

r 은 측정변수의 Likert 척도의 범위 (KMIC는 6점 척도이므로, $r=6$)

w_j 는 측정변수 j 의 비율로 환산된 가중치

출처: 여성가족부(2022).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56.

지수의 간명성으로 인해 KMAI는 기존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었다 (구하라 외, 2021; 장수지, 2021). KMAI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구체적인 설문문항 및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89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춘 측정도구이다 (김이선 외, 2022).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접촉의 경우 친밀한 직접접촉과 피상적 직접접촉으로 구분하였다. 친밀한 직접접촉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 및 친척, 친구, 학교동료 또는 직장동료, 이웃 등 직접적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여,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피상적 직접접촉은 대중교통, 쇼핑센터, 길거리 등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전혀 본 적 없다, 5=매우 자주 본다).

다음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의 경우 긍정적 간접접촉과 부정적 간접접촉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긍정적 간접접촉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1) 봉사활동을 하는 외국 이주민, 2)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 혹은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 이주민, 4)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이주민, 5) 한국으로 귀화한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본 빈도를 5점 척도 (1=전혀 본 적 없다, 5=매우 자주 봤다)로 묻은 5개 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0.658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Hair et al., 2019). 부정적 간접접촉은 대중매체에서 강제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본 빈도를 5점 척도 (1=전혀 본 적 없다, 5=매우 자주 봤다)로 설문한 2개 문항을 활용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0.624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Hair et al., 2019). 다문화교육경험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그 외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0, 여자의 경우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조사설문지에 미혼, 기혼(동거포함, 배우자 있음), 기타 (이혼, 사별 등 포함)의 세 가지 응답지가 주어졌으며, 분석을 위해 미혼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으로써 100만원 미만부터 800만원 이상까지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에 대해 제시하는 표이다.

〈표 2〉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외국 이주민에 대한 한국주류집단의 수용성 정도	다문화수용성지수를 활용하여 0-100점 척도로 측정 (Cronbach's α = 0.899)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친밀한 직접접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외국 이주민 존재 여부	없다=0, 있다=1
	피상적 직접접촉	외국 이주민의 단순목적빈도	5점 척도 (전혀 본 적 없다=1, 매우 자주 본다=5)
	긍정적 간접접촉	대중매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의 외국 이주민에 대한 접촉 빈도	5점 척도로 된 5개 설문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 (Cronbach's α = 0.658)
	부정적 간접접촉	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의 외국 이주민에 대한 접촉 빈도	5점 척도로 된 2개 설문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 (Cronbach's α = 0.624)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없다=0, 있다=1
통제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자=0, 여자=1
	연령	응답자의 나이	응답자의 만 나이로 측정
	혼인상태	응답자 혼인상태	미혼=0, 기혼(동거포함, 배우자 있음)=1, 기타(이혼, 사별 등 포함)=2
	교육수준	응답자의 최종학력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4년제대졸=4, 대학원 이상=5
	소득수준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총소득	9점 척도 (100만원 미만=1, 800만원 이상=9)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이상의 측정을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표본의 41.8%는 남성, 58.2%는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6.1%로 두 번째로 많아 50대 이상이 전체 표본의 57.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17.8%, 고졸 42.9%, 전문대졸 17.5%, 4년제대졸 20.6%, 대학원 이상 1.1%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15.7%, 동거 등 사실혼을 포함한 기혼이 77%, 이혼이나 사별 등 기타 응답이 7.3%로 대다수 응답자가 기혼이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성	2,089
	여성	2,911
연령대	20대 이하	431
	30대	683
	40대	1,001
	50대	1,307
	60대 이상	1,578
교육수준	중졸 이하	891
	고졸	2,146
	전문대졸	877
	4년제대졸	1,032
	대학원 이상	53
혼인상태	미혼	783
	기혼 (동거 포함)	3,849
	기타 (이혼, 사별 등)	367
소득수준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214
	100-199만원	502
	200-299만원	892
	300-399만원	1,182
	400-499만원	1,038
	500-599만원	702
	600-699만원	257
	700-799만원	98
	800만원 이상	111

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원데이터의 빈도값을 계산한 표임.

었다. 끝으로 응답자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총소득 300-399만원 사이가 2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499만원 사이가 20.8%, 200-299만원 사이가 17.9%, 500-599만원 사이가 14.1% 등의 순이었다.

〈표 4〉는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표이다. 먼저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2021년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은 100점 만점에 평균 52.30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가족, 친척, 친구, 학교나 직장동료 등 가운데 외국 이주민이 있는지를 묻는 친밀한 직접접촉의 경우 최빈값은 0으로써 외국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추가적인 빈도분석 결과 표본 5,000명 가운데 외국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537명으로써 전체의 70.7%를,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63명으로써 전체의 29.3%를 차지하였다. 대중교통, 쇼핑센터, 길거리 등에서의 외국 이주민 목격빈도를 묻는 피상적 직접접촉의 경우 평균점수는 3.24로써 가끔 본다면 3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외국인의 모습을 접하는 빈도를 묻는 긍정적 간접접촉의 경우 평균값은 2.85이었으며, 부정적 외국인의 모습을 접하는 빈도는 묻는 부정적 간접접촉의 경우 평균값은 2.66으로 두 경우 모두 중간값인 3(가끔 봤다)보다 낮은 수준으로, 긍정적 간접접촉의 빈도가 부정적 간접접촉의 빈도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교육경험 유무에 관해서는 경험없음(0)이 최빈값으로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빈도분석에 따르면 5,000명 표본 가운데 다문화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764명 (95.3%)이었으며,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은 236명(4.7%)에 불과하였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친밀한 직접접촉 여부는 다문화 수용성과 유의미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r=0.134$), 이는 피상적 직접접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r=0.159$).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의 경우 긍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r=0.089$), 부정적 간접접촉의 경우 다문화수용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103$).

<표 4>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Obs.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1	2	3	4	5
1.다문화수용성	5,000	52.30	10.43	0	100					
2.친밀한 직접접촉	5,000	.	.	0	1	.134*				
3.피상적 직접접촉	4,998	3.24	0.76	1	5	.159*	.139*			
4.긍정적 간접접촉	4,577	2.85	0.59	1	5	.089*	.089*	.147*		
5.부정적 간접접촉	4,577	2.66	0.80	1	5	-.103*	-.008	.081*	.526*	
6.다문화교육 경험	5,000	.	.	0	1	.162*	.139*	.017	.031*	-.020

* $p<0.05$

2.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는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 및 다문화교육경험이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에 있어 다문화교육경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모든 연속형 변수에 대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 내 변수의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VIF 값은 3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져 양자 간 부(-)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의 경우 다문화수용성과 정(+)의 관계에 있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혼인상태, 소득수준은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각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는 모형 2와 모형 3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모형 2]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접촉과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2에 대한 설명력은 11.8%로 모형1에 대한 설명력인 3.4%에 비해 8.4% 증가하였으며, 모형 설명력에 대한 변화량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친밀한 직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가족, 친척, 친구, 혹은 학교나 직장동료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적 상호작용이나 교류의 대상인 외국 이주민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외국 이주민과의 친밀한 직접접촉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 정(+)의 관계를 예측한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피상적 직접접촉의 경우 역시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 이주민을 자주 보는 것, 즉 외국

이주민에 자주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상적 직접접촉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예측한 가설 2-1은 지지되었으며, 부정적 효과를 예측한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의 경우 가설 3-1은 긍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을 증가시킬 것임을, 가설 3-2는 부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

〈표 5〉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성별	-0.373 (0.309)	-0.018	-0.343 (0.296)	-0.016	-0.347 (0.295)	-0.017
연령	-0.092*** (0.017)	-0.123	-0.092*** (0.016)	-0.123	-0.095*** (0.016)	-0.126
혼인상태:기혼	-0.463 (0.535)	-0.019	-0.413 (0.513)	-0.017	-0.478 (0.512)	-0.019
혼인상태:기타(이혼,사별 등)	1.059 (0.807)	0.026	0.920 (0.772)	0.023	0.861 (0.771)	0.021
교육수준	0.806*** (0.191)	0.081	0.523** (0.184)	0.052	0.517** (0.184)	0.052
소득수준	-0.094 (0.099)	-0.016	-0.064 (0.095)	-0.011	-0.072 (0.095)	-0.012
친밀한 직접접촉			2.232*** (0.320)	0.099	2.016*** (0.329)	0.090
피상적 직접접촉			1.764*** (0.194)	0.129	1.717*** (0.198)	0.126
긍정적 간접접촉			2.647*** (0.291)	0.151	2.482*** (0.299)	0.142
부정적 간접접촉			-2.580*** (0.211)	-0.201	-2.516*** (0.218)	-0.196
다문화교육 경험			5.533*** (0.685)	0.116	3.043** (1.035)	0.064
친밀한직접접촉*다문화교육					3.795** (1.396)	0.061
피상적직접접촉*다문화교육					0.889 (0.941)	0.014
긍정적간접접촉*다문화교육					3.021* (1.254)	0.037
부정적간접접촉*다문화교육					-0.579 (0.862)	-0.010
Constant	56.013*** (1.144)		55.534*** (1.102)		55.846*** (1.104)	
Observations	4,570		4,570		4,570	
F-statistic	27.066***		55.600***		42.064***	
R^2	0.034		0.118		0.122	
ΔR^2			0.084***		0.004**	

주) ***p<0.001, **p<0.01, *p<0.05; 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성을 감소시킬 것임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는 양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바,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접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 간 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다문화수용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써,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교육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설 4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다문화교육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3에 대한 설명력은 12.2%로 모형2에 대한 설명력인 11.8%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에 대한 변화량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친밀한 직접접촉과 다문화교육 경험의 상호작용변수, 그리고 긍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교육 경험의 상호작용변수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가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친밀한 직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정(+)의 관계, 그리고 긍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정(+)의 관계가 다문화교육 경험에 의해 강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5-1과 가설 5-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피상적 직접접촉과 다문화교육 경험의 상호작용변수 및 부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교육 경험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교육경험이 피상적 직접접촉과 부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가설 5-2와 가설 5-4는 지지되지 않았다.

앞선 모형들에서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접촉 변수, 그리고 다문화교육 변수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3에서도 그 통계적 유의성 및 방향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끝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 가운데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화계수(Beta) 값을 살펴본 결과, 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196$, $p < 0.001$), 다음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긍정적 간접접촉 ($Beta = 0.142$, $p < 0.001$), 피상적 직접접촉 ($Beta = 0.126$, $p < 0.0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방향으로의 사회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의 유형화를 통해 각 접촉경험이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 정부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하여 강조하였던 일반국민 다문화교육에 주목하여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직접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개인의 다문화수용성 정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접촉경험의 유형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을 제시한다. 우선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친밀한 직접접촉의 경우, 친밀한 직접접촉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문화수용성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알포트(1954)의 접촉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알포트(1954)가 주장한 네 가지 선행조건의 충족 없이도 접촉과 수용성 간의 정(+)적 관계가 성립함을 보임으로써, 알포트(1954)가 주장한 네 가지 선행조건이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필수조건이 아님을 증명한 Pettigrew and Tropp(2006)의 메타분석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또한 Allport(1954)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집단간 접촉은 타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유효한 방법임을 제시한 기존의 사회심리학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Paluck et al., 2019; Yablon, 2012).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외국 이주민 목격을 의미하는 피상적 직접접촉의 경우 피상적 직접접촉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은 어떤 대상에 자주 노출될수록 해당 대상에 대하여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단순 노출효과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Zajonc, 2001), 다양성에의 노출이 관용의 정도를 높인다는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결과이다 (Huckfeldt et al., 2004; Mutz, 2002).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간접접촉의 경우 이주민의 긍정적 모습을 접하게 되는 긍정적 간접접촉과 부정적 모습을 접하게 되는 부정적 간접접촉으로 유형을 나누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긍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현실에서의 해당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사회 상호작용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Horton & Wohl, 1956; Reeves & Nass, 1996; Rubin & McHugh, 1987).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임을 제시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과도 일관된 것으로써 (남보영·홍이준, 2021; 두예슬·김경근, 2022; 신동훈·양경은, 2020), 외국 이주민과 같은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태도와 보도방식이 이들에 대한 주류집단의 수용성,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찬중, 2020).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경험 여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직접효과에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이선 외, 2022: 108). 우리 정부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를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19-74세 응답자 가운데 다문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문화교육경험은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에 대해서 일부 조절효과를 보였는데, 다문화교육경험은 친밀한 직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정(+)의 관계 및 긍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정(+)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피상적 직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정(+)적 관계 및 부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부(-)적

관계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는 외국 이주민과의 상호작용 혹은 교류가 있는 경우나 대중매체를 통한 긍정적 간접접촉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고, 외국 이주민에 대한 피상적인 단순목격이나 부정적 간접접촉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양적 연구의 특성상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다문화교육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외국 이주민 접촉유형별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이선 외 (2022: 109)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4%는 외국 이주민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한 교육이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 이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내용(36.5%)이라고 한다. 즉,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교육보다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외국 이주민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다문화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다문화교육을 받게 될 경우, 가령 대중매체를 통한 긍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겠지만, 부정적 간접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 이미지의 외국 이주민에 대한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교육한 다문화교육 경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실제로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즉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다수가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 (김미진·김정은, 2018)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점,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 경험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드문 현실에서 접촉경험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점, 그리고 최근 정부정책으로 강조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일반국민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및 위에서 논의한 많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친밀한 직접접촉 변수의 측정과 관련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직접접촉을 배우자, 친척, 친구, 동료 등 직접적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있는 외국 이주민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측정은 19-74세의 성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장수지, 2021), 2021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데이터 특성에 따른 한계이기도 하다. 즉, 2021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응답자 5,000명 중 친밀한 직접접촉 관계에 있는 외국 이주민이 없는 경우가 3,537명으로 전체의 70.7%, 1명인 경우는 1,370명으로 전체의 27.4%, 2명인 경우는 72명으로 전체의 1.4%, 3명인 경우는 16명으로 전체의 0.3%, 4명인 경우는 5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하여 친밀한 직접접촉 관계에 있는 외국 이주민의 숫자로 변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 내 다원화의 가속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외국 이주민과의 상호작용 혹은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친밀한 직접접촉의 유무뿐 아니라 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정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이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양적 연구의 특성상 왜 혹은 어째서 다문화교육 경험이 특정 접촉유형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는 조절하는 반면 다른 유형의 접촉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는 조절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양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연구의 병행을 통하여 다문화교육경험의 조절효과 매커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어 다문화교육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다문화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문화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유용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선경·김현진. (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59-282.
- 곽준혁. (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2.
- 구하라·성상환·모경환. (2021).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중요한 타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4): 61-80.
- 김경근·심재휘. (2016). 한국인의 다문화적 태도: 상대적 수준, 영향요인 및 과제. 「한국교육학연구」, 22(1): 283-310
- 김미진·김정은. (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1): 1-27.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3-30.
- 김이선·최윤정·정연주·장희영·이명진·양계민.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김찬중. (2020). 외국인 이주민 관련 긍정적 뉴스 보도가 부정적 태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 준 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2): 50-92.
- 남보영·홍이준. (2021).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81-208.
- 두예슬·김경근. (2022). 한국 청소년의 이주민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 관계. 「교육문화연구」, 28(5): 529-550.
- 박미경·차용진·이홍재. (202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잠재 프로파일 유형과 영향요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6(4): 29-5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서경숙·이근영. (2022). MZ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4): 713-728.
- 신동훈·양경은. (2020). 일상 속 이주민 목격과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6(1): 111-139.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2-02). 여성가족부.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2.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
- 여성가족부. (2022).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배포자료.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자형·박현준·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41(3): 5-34.
- 이재완. (2013).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서울시의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4): 285-315.

- 장수지. (2021).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연령집단별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0: 5-27.
- 황성동·임혁·윤성호. (201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1): 125-150.
- 황정미 · 김이선 · 이명진 · 최현 ·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brams, J. R., McGaughey, K. J., & Haghghat, H. (2018). Attitudes toward Muslims: A test of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and contact theory.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47(4), 276-292.
- Adan, H. (2018).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an international service learning program in Tanzania for Canadian teacher candidates* (Doctoral dissertation). Windsor, Canada: University of Windsor.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NY: Addison-Wesley Publishing.
- Atwell Seate, A., & Mastro, D. (2016). Media's influence on immigration attitudes: An intergroup threat theory approach. *Communication Monographs*, 83(2), 194-213.
- Bell, M. P., Connerley, M. L., & Cocchiara, F. K. (2009). The case for mandatory diversity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8(4), 597-609.
- Bennett, C. I. (2018).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th ed.,) New York, NY: Pearson.
- Brewer, M. B., & Kramer, R. M. (1985).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1), 219-243.
- Case, K. A. (2007). Raising White privilege awareness and reducing racial prejudice: Assessing diversity course effectiveness. *Teaching of Psychology*, 34(4), 231-235.
- Graf, S., Paolini, S., & Rubin, M. (2020). Does intimacy counteract or amplify the detrimental effects of negative intergroup contact on attitud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3(2), 214-225.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Boston, MA: Cengage Learning.
- Hartog, M., Haddock-Millar, J., Rigby, C., & Wilson, D. (2015). Developing diversity skills with university students: The key to better relationships and the flourishing of human potential.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Digest*, 23(5), 35-38.
- Horton, D., & Wohl, R. R.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Observations on intimacy at a distance. *Psychiatry*, 19(3), 215-229.
- Huckfeldt, R., Mendez, J. M., & Osborn, T. (2004). Disagreement, ambivalence, and engagemen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25(1), 65-95.
- Judd, C. M., & Park, B. (2005). Group differences and stereotype accuracy. In Dovidio, J. F., Glick, P., & Rudman, L. A. (Eds.). (2008). *On the nature of prejudice: Fifty years after Allport* (pp. 123-138),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Keengwe, J. (2010). Fostering cross cultural competence in preservice teachers through

-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8, 197-204.
- Mastro, D., & Tukachinsky, R. (2011). The influence of exemplar versus prototype-based media primes on racial/ethnic evalua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61(5), 916-937.
- Mutz, D. C. (2002).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1-126.
- Nagda, B. R. A., Kim, C. W., & Truelove, Y. (2004). Learning about difference, learning with others, learning to transgress. *Journal of Social Issues*, 60(1), 195-214.
- Paluck, E. L., Green, S. A., & Green, D. P. (2019). The contact hypothesis re-evaluated. *Behavioural Public Policy*, 3(2), 129-158.
- Pettigrew, T. F. (1997). Generalized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2), 173-18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Reeves, B., & Nass, C. (1996). *The media equation: How people treat computers, television, and new media like real people and pla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R. B., & McHugh, M. P. (1987). Development of parasocial interaction relationship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1(3), 279-292.
- Rudman, L. A., Ashmore, R. D., & Gary, M. L. (2001). "Unlearning" automatic biases: the malleability of implicit prejudice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856-868.
- Sims, V. M., & Patrick, J. R. (1936). Attitude toward the Negro of northern and souther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2), 192-204.
- Smith, F. T. (1943). *An experiment in modifying attitudes toward the Negro*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 Williams, M. T., Kanter, J. W., Peña, A., Ching, T. H., & Oshin, L. (2020). Reducing microaggressions and promoting interracial connection: The racial harmony workshop.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16, 153-161.
- Yablon, Y. B. (2012). Are we preaching to the converted? The role of motivation in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 of intergroup encounters. *Journal of Peace Education*, 9(3), 249-263.
- Zajonc, R. B. (2001). Mere exposure: A gateway to the sublimina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6), 224-228.

<부록 1> 다문화수용성지수(KMAI) 측정에 사용한 설문문항 및 가중치

하위척도 (문항수)	설문문항	가중치
1. 다양성 (15)		.39
1a. 문화개방성 (4)	•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12
1b. 국민정체성 (4)	•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13
1c. 고정관념 및 차별 (7)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14
2. 관계성 (11)		.38
2a. 일방적 동화기대 (4)	•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12
2b. 거부·회피정서 (3)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14

하위척도 (문항수)	설문문항	가중치
2c. 상호교류행동의지 (4)	•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 하겠다.	.12
3.보편성(9)		.23
3a. 이중적 평가 (4)	•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12
3b. 세계시민행동의지 (5)	•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11

주1)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됨 (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주2) Ⓡ은 역부호화 문항을 의미함.

출처: 김이선 외(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43쪽의 <표 II-5>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